

Global Tech

AI 모델 지정학과 엔비디아의 섀범

박재환 6158/jaehwan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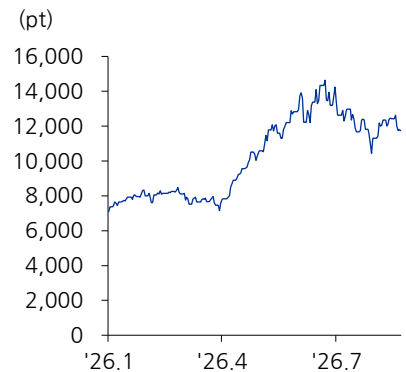
“ 엔비디아는 미국 소재 오픈웨이트 모델 스타트업 Poolside AI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가로 60억달러를 지불하고, 10억달러를 추가 지분 투자하는 계약을 발표. Poolside AI는 프론티어 폐쇄형 모델 대비 오픈웨이트 모델의 특성상 가중치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측면에서 유리하며, 중국 오픈웨이트 경쟁자 대비 데이터 유출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어 B2B/G(정부 및 공공기관)에 포지셔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

“ Poolside의 오픈웨이트 모델인 Laguna가 Poolside의 자체 AI 모델 개발 플랫폼인 Model Factory를 통해 학습되었다는 점이 특징적. Model Factory는 데이터 수집·정제·중복 제거 등의 데이터셋 생성부터, 모델 학습 단계에서의 평가·강화학습, 추론 단계에서의 가중치 이전 등 AI 모델 개발 전반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엔비디아의 라이선스 대상 또한 완성된 모델이나 가중치 세트가 아니라 Poolside의 Model Factory 플랫폼. 즉, 금번 계약은 엔비디아가 모델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상대적으로 규제와 보안 측면에서 자유로운 미국 오픈웨이트 진영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시사.

“ 엔비디아는 Nemotron으로 대표되는 자체 오픈웨이트 모델을 출시하고, Poolside의 Model Factory를 라이선스 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픈웨이트 시장을 확장하려는 행보를 보임. 엔비디아 GPU는 ASIC 대비 범용성에 특화되어 있으며 CUDA Library 기반의 견고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자체 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오픈웨이트 모델 진영은 엔비디아 생태계를 기반으로 구동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ASIC 노출도가 높은 프론티어 모델 진영(앤티로픽, 오픈AI)의 수요 독점은 엔비디아 GPU 수요를 잠식시킬 우려가 있어, AI 모델 수요가 다중 오픈웨이트 모델로 분산되는 상황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상적. 아울러 Kimi K3의 사례로 오픈웨이트로의 모델 수요 분산이 컴퓨트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 않음을 확인. 따라서 오픈웨이트 모델 생태계 확장은 AI 시장 전체에서 엔비디아 아키텍처 Lock-in을 강화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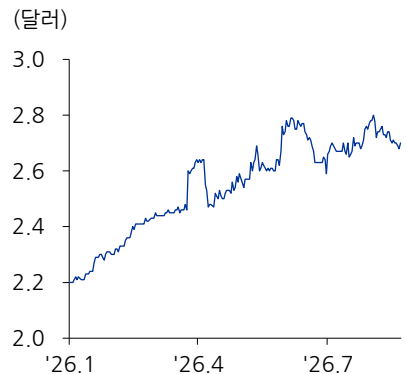
“ 아울러 오픈웨이트 생태계 확장은 1) 엔비디아 GPU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2) 하이퍼스케일러 대비 프론티어 모델과 이해관계가 중립적이며, 3) 상대적으로 컴퓨트 가격이 합리적인 네오클라우드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 코어워브는 Managed Inference, 네비우스는 Token Factory를 통해 오픈웨이트 모델을 서빙 중. 이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단순 시간 당 과금에서 사용량 당 과금으로 부가가치 확장을 가능하게 해 줌. 오픈웨이트 모델 수요 증가로 인한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성장은 다시 엔비디아 아키텍처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 금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오픈웨이트 생태계와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SOX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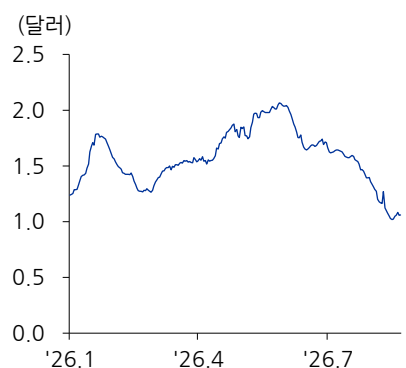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H100 렌탈가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토큰 지출 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